

“1년 숙성 목은지 깊은 맛에 반했어요” 강진군, 이색 시식·판매로 흥행몰이

전국 첫 향아리 개봉 마케팅 행사
소비자·관광객 눈·입맛 사로잡아

한정식의 고장 강진에서 ‘목은지’를 소재로 이색적인 행사가 펼쳐져 주목을 끌었다. 강진군에 따르면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개막식에 다다른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1년 숙성 목은지 향아리 개봉식과 시식·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생산해 온 강진 목은지의 우수성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신규 소비자를 확보해 선전하기 위한 마케팅 행사로 진행됐다.

전국 최초 강진 목은지 향아리 개봉식과 시식·판매 행사는 관광객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지역 특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강진군을 목은지 산업 중심지로의 입지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5개 업체의 목은지를 돼지머릿고기, 두부와 곁들여 1000여 명이 넘게 무료 시식,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5개 업체의 목은지를 돼지머릿고기, 두부와 곁들여 1000여 명이 넘게 무료 시식, 호평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와 개봉식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한 A씨는 “강진 목은지 특유의 깊고 풍부한 맛에 반했다”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시식을 마치고 입맛에 맞는 목은지를 구매할 소비자들에게 강진에서 생산된 쌀귀리 사은

품을 증정, 목은지뿐만 아니라 쌀귀리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시식·판매 행사의 실시간 생중계를 위해 파워유튜브 ‘후다닥요리’ 채널이 행사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현장에서 강진 목은지 475kg을 판매해 456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강진 목은지와 쌀귀리를 동시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면서 “강진 목은지 산업 생태계를 확대 구축해 대량 생산과 유통을 통한 소득 증대를 달성하고 귀촌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은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1년 숙성 목은지 향아리 개봉식과 시식·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나주시, 장애인 이동권 강화 콜택시 2대 늘려 16대 운행

장애인 대비 보유 기준 100% 채워

나주시가 2023년 기준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보유해야 하는 장애인콜택시 보유 대수를 100% 만족했다. 전남 타 시군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보유율이 60~70%인 점과 비교하면 장애인 이동권 복지시스템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나주시는 최근 장애인콜택시 2대를 새롭게 구입해 총 16대를 현장 운행에 투입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슬로프(이동경사로)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으로 중증 보행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차량 서비스 이용은 전남광역시장애인복지센터 이용자 등록 후 콜센터(1899-1110)를 통해 배차를 요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무료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내년에는 장애인콜택시 3대를 증차해 총 19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는 '나주시 장애인콜택시'. (나주시 제공)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남도 주류·빛가람 빛 정원 페스타'

8·9일 이틀간 호수공원 일원

나주시가 8일과 9일 이틀간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4 남도 주류 페스타'를 개최한다. 깊어져 가는 가을밤을 환하게 밝혀줄 빛 조명과 다채로운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2024 빛가람 빛 정원 페스타'도 같은 날 개막해 관광객에게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 체류형 관광과 주류 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열리는 남도 주류 페스타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과 중국 쓰촨성 주류기업 등 국내외 30여개 주류업체가 참여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와 생산주 전 시·홍보, 시음,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주와 찰떡궁합인 각종 안주를 맛볼 수 있는 음식 부스·푸드트럭과 호수공원 캠프닉 세트 대여, 골 공방 체험, 팻 놀이터 무료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텐더가 출연하는 세계 각국 일 쇼 공연, 스타 셰프의 남도술&푸드퍼어링쇼, 프리미엄 남도술 경매쇼 등 관광객의 입맛을 자극할 색다른 볼거리도 선보인다. 주류 페스타 개막과 함께 '빛가람 호수공원에 흐르는 빛의 물결'을 주제로 빛가람 빛 정원 페스타가 24일까지 17일간 열린다. '빛'을 소재로 개최하는 첫 축제 행사로 빛가람 호수공원 어울리에서부터 음악 분수대 구간엔 빛 게이트, 스카이라인, 커튼 로드, 파티 라이트 등 다양한 테마와 형태의 빛 조형물 20여개가 호수공원 일대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인다. 빛 조형물과 야간 조명은 매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불을 밝힌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맛과 품질의 전통주를 빛가람 호수공원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화려한 불빛 속에서 맛보는 추억을 가져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주류·빛 정원 페스타 포스터.

화순적벽버스투어, 셔틀 관람객 올해 첫 2만명 돌파

현장 예매·인터넷 예약 운영

화순군은 '2024 화순적벽버스투어'의 적벽셔틀 관람객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화순적벽버스투어를 위탁 운영하는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최근 화순적벽 2만번째 관람객 환영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영예의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시 이복순씨로, 화순적벽버스투어 홍보물인 트레블과우치와 세면키트, 보냉백 등 상품이 주어졌다. 이씨는 “화순 제1경인 화순적벽이 가을에 절경을 이룬다고 해서 마음먹고 왔는데 좋은 선물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좋은 기억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2024 화순적벽버스투어'는 적벽셔틀(현장 예매)과 적벽투어(인터넷 예약)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19일부터 운영 중인 적벽셔틀투어는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과 대도시 관광박람회 참여 등으로 관람객이 크게 늘고 있다. 화순적벽투어를 시작한 이후 적벽셔틀로만 한 해 2만명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적벽셔틀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매표가 가능하



화순적벽 2만번째 관람객 이복순(왼쪽)씨가 화순군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며 매주 화·목·금·토·일요일 운영한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화순적벽셔틀투어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더 운영한 뒤 겨울철 중

장흥군 새 BI '노벨 문학도시 장흥' 확정

장흥군이 문학관광 BI (Brand Identity)를 '노벨 문학도시 장흥'으로 확정했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문학관광 BI를 확정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집필활동지인 '문학관광기행특구' 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린 결정이다. 장흥군 앞서 지난 5일 군정 회의실에서 '노벨 문학도시 장흥' 정책 아이디어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성 군수가 주재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학관광 분야 아이디어 170여 건이 발표됐다. /장흥=김홍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정책 아이디어 보고회를 시작으로 문학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의 문학관광 분야에 관심과 자긍심을 갖고 귀중한 의견을 제안해 준 직원들에 대해 감사한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노벨 문학도시 장흥'을 위해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김홍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청년센터 조감도.

장성군 청년센터 내년 1월 착공 12월 개관

청년 창업·커뮤니티 공간 활용

장성군이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위한 커뮤니티 허브 기능을 담당할 청년센터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는 청년센터 건립이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장성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통합 화기반조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청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장성군민회관 인근 1690㎡ 부지에서 실시하게

가 진행 중이다. 청년센터는 바닥면적 600㎡의 2층 건물로 일자리센터와 창업공간, 회의실, 상담실, 다목적홀 등을 갖추고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접근성이 좋은 읍사거리에서 청년활동 거점시설이 들어서면서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창업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성장 장성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2자녀 가정에도 기저귀 지원

3자녀 이상에서 대상 확대

담양군이 다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4월 개정된 인구늘리기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울 예정이다. 기저귀 지원은 월 9만 원씩 3개월 단위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가 직면한 경제·교육·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2자녀 기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담양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문화예술 명인·명장 공모 12일까지 접수... 12월 중 선정

나주시는 오는 12일까지 2024년 문화예술 분야 명인·명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미술·음악·무용·사진 등 분야 종사자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계속 종사해야 한다. 단체나 20명 이상 주민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와 추천서, 공적조서, 경력증명서 등을 시청 문화예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 및 공연 실적, 전문성 보유 등 서류심사와 예술 기량, 창작 기법, 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명인·명장으로 선정되면 인준패와 활동 지원비, 지자체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